

중국 정부와 기업이 인삼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중국 인삼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자국 인삼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약용으로 쓰이던 인삼이 건강보조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의 인삼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삼 경작, 가공, 기업 경영 기법은 한국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부가가치 시장은 한국, 일본 등에 밀리고 세계 최대의 인삼 생산국인 중국제품은 저가로 팔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국 인삼업계는 한국의 인삼 산업 벤치마킹과 인삼 재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창바이산(長白山) 일대 15개縣을 인삼 주산지로 지정했다. 吉林省은 이를 통해 인삼 산업 규모를 2010년의 100억 위안에서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약 17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에서 인삼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1,000억 위안 달성 계획이 3년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 인삼업계가 한국에 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업의 기술 연구 개발이 이어지면 한국 인삼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 인삼업계는 한국 인삼산업을 학습과 연구의 대상은 물론 경쟁 대상으로 꼽고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4년 중국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인삼을 수출하는 省은 12개省이며 이중 길림, 광둥, 요녕, 절강, 강소 5개省이 중국전체 수출량의 90.9%를 점유하고 여타의 다른 지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그림 23)



그림 23. 중국의 성별 인삼 수출 구성비(좌)와 수출 대상국

자료: kita.net

그림 23의 우측 자료는 2014년 500만 달러 이상 수출된 국가만을 넣은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탈리아,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지에 157,960천 달러를 수출했고 일본, 홍콩, 대만이 전체 수출의 7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물량이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지역에는 전체 수출의 15.4%에 불과하였다.

그림 24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인삼을 수입하고 있는 시계열 자료이다. 북미에서 들여오는 인삼은 화기삼(花旗蔘)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하며 한반도나 만주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인삼과는 구분되고 있다. 야생에서 자라는 인삼의 기능성을 모르던 캐나다나 미국인들이 인삼을 채집하여 홍콩으로 수출하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미국 농무성은 야생인삼이 일반인들에 의해 무차별로 채집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0년 후반 희귀식물로 분류하여 채집을 막고